

오피니언

테마칼럼

남도의 재발견

도시와 삶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김 왕 복

“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학교, 학생, 또는 학부모가 혼란을 겪고 국가경쟁력에 흠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와 교육감들이 하심 탄핵한 의사소통을 해서 협상과 타협을 하고 신속하게 해결점을 찾아내야 한다.

”

6·2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진보 성향 교육감 6명을 선택했다. 이제까지 겪어 보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학교 교육현장에 돌아칠 것이 분명하다. 과거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교육청과 학교는 정해진 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제는 일방통행식의 중앙정부 정책이 학교 현장까지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다. 중간에 교육감들이 여과장치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폐배한 이유가 ‘일방적 리더십과 견제십리’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일부는 ‘일방통행식의 국정 운영으로 늘어난 채 쌓였던 민심의 분노가 선거리는 합법적 통제장치를 통해 분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육계 이슈도 이러한 민심 흐름에 일정 부분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정책은 정치적 중립성을 띠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번 선거민족 교육 이슈가 정치적 간접성이 된 적이 없었다. 무상급식 확대, 학교성적 개개, 전교조 교사 징계 지침, 교원평가제 활용 문제 등 유권자들이 표심을 정하는데 좋은 기준으로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

본래 자유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고, 관료들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성실하게 집행하는 체제를 말한다. 그러므로 선출된 교육감이 공약을 보고 투표한 지역 주민의 의사를 충

실히 반영하는 것은 민주행정의 기본이고 누구도 말릴 수 없다.

문제는 중앙정부와의 대립과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지난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선호하였고 이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쟁과 학교선택권 중심의 교육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이번 선거에서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에 반기기를 들고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은 일부 정책들에 대해 정부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학교, 학생, 또는 학부모가 혼란을 겪고 국가경쟁력에 흠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와 교육감들이 하심 탄핵한 의사소통을 해서 협상과 타협을 하고 신속하게 해결점을 찾아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교육감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해 보자 한다.

우선 청와대와 집권여당,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바란다. 첫째, 특정 교육정책을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서울과 광주, 강남구와 담양군은 교육환경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사고방식, 생활 방식까지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둘째, 일방통행식 교육정책의 밀어붙이기를 중단하고 정기적인 교육감협의회 활성화를 통해서 상방향 의견 조율 체널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본래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교육감들은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국가백년대계를 최우선 생각해야 한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고려 또는 특정 교사집단에 혜택이 있는 정책보다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고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사·학부모 상담회의(미니 컨퍼런스: Mini-Conference)를 정례화할 것을 권의한다. 학교 단위에서도 상방향 의사소통 체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미국에서 최우수 공교육기관으로 꼽히는 버지니아주 패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에서는 매 학기마다 하루 중 반나절을 잡아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수강하는 교과목 담당 교사들과 면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신상 문제와 학업성취도 등 모든 정보가 교환되고 피드백된다. 제도적으로 소통의 장이 마련되면 상호 이해 범위가 넓어지고 교사의 독주에 대해 학부모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교육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앞으로 내용적으로는 민의가 반영되고 절차적으로는 참여가 보장된 합리적인 교육정책들이 수립·시행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국립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본래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종교칼럼



법선 스님

종교가 자기가 창시된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와 불교는 근원지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지금의 인도의 성지를 이교도들이 관리하는 것처럼, 해인사·불국사 같은 불교의 성지를 타종교인들이 관리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형건물을 짓고, 동양 최대의 불상을 몇백 개를 세워도 중생의 시대적인 아픔을 감싸주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 불교 또한 인도불교와 다를없는 문재재만 남은 불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몇백 개 되는 대형교회도 유럽의 성당이나 기도원처럼 영광관이나 호프집

교 또한 인도 불교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지금의 인도의 성지를 이교도들이 관리하는 것처럼, 해인사·불국사 같은 불교의 성지를 타종교인들이 관리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양식이 서구화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중풍과 치매, 관절통 등을 호소하는 눈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자자체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기고



김명권

최근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그 수요도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한방진료와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도 개발·보급되고 있다.

우리의 생활양식이 서구화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중풍과 치매, 관절통 등을 호소하는 눈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자자체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

집중과 선택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한의약 관련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내 민간한방의료 기관 등과 연계해 지역특성과 실정에 알맞은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지역주민의 요구도 높은 분야를 우선 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죽어온 만족도도 한층 높여가고 있다.

노인들의 참여가 높은 한방프로그램은 특히 중풍예방교육으로 인해 노인들의 관심이 아주 높다. 중풍은 한번 이환되면 완치가 거의 힘들고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질

인도불교의 멸망에서 얻은 교훈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인 외적인 요소가 불교를 사라진 전부 이유일까요? 근본적으로는 불교 자체의 내부에서 기인합니다.

첫째는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바라운 교부흥에 의한 불교 자체의 악화입니다. 형의상학적인 한두교와 대동해서 실천적인 모습으로 출현한 불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교와 괴가면서 문화적으로 한두교에 흡수되는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둘째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불교가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복잡해지면서 중생의 삶이 유리되었습니다.

셋째는 불교 자체의 부패와 엄격한 계율을 지키는 출가 교단의 부재와 한두교와 유사해져 버린 점입니다.

넷째는 중생의 삶을 감싸주는 통과의례를 장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불교를 믿으면서도 탄생과 결혼, 장례의식과 제사 등이 불교화되지 못하고 한두교화된 통과의례를 진행함으로써 며리로는 불교이면서 삶의 모습은 한두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변화하는 시대에 중생과 함께 창조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대의 불

으로 바뀌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까요?

대형사찰이나 대형교회가 지금 신도 한 명당 몸값이 매겨지는 그런 실태입니다. 어느 성경에도 100억짜리, 200억짜리, 희화관 교회에 앉아서 믿어야.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간다라고 써 있는 곳은 없습니다.

불교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 속에서 기복 불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브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빙자해 살아있는 이들의 유행을 추구할 뿐입니다.

순수하지 못하고 이의집단화 되어가며, 세속의 정치집단만도 못한 도덕적인 관념을 가진 종교가 어찌 세간과 사회를 이끄는 지도력이 나을 것인가?

사과가 썩어도 사과 썩어지 않으면 흐망이 있다 합니다. 사과가 아무리 타락해도 부패해도 언론과 종교가 살아 있으면 그 사과는 흐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권력화된 언론과 권력과 외세에 빌붙거나 굽실대고 진리보다는 돈을 섬기는 부패한 종교를 보면서 암합함을 느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과는 흐망이 있다고 합니다.

요새는 농민들도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데 도

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대체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의약을 기반으로 중풍, 근골격계질환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건강을 증진하는데 큰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노인·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보건소에서는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면서 한의사가 진료하고 침·뜸·부항 등을 시술해주고 필요시에는 한약제제를 처방해 치료를 하면서 과학적인 한방진료기를 함께 이용한다. 또 보건소에서는 중풍예방교육, 기공체조교실, 한방관찰염교실, 청소년한방건강교실 등 다양한 한방보건교육을 통해 지역내의 건강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건강지킴이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내의 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에도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한방 건강상담과 한방진료 등을 해드리고 있어 좋은 평을 받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풍부한 서비스 제공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 적정하고 적절한 진료 및 치료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광주시 서구보건소장〉

한의약과 공공보건사업

며칠 전 무안 주변 국도를 달리던 중 농가에서 좀 떨어진 들판의 농로 쪽에서 차가 한대 서있었는데 운전수가 트렁크에서 뭔가를 열심히 꺼내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사람이 태우는 것은 종이와 플라스틱 병 같은 쓰레기였다.

요새는 농민들도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데 도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오피니언

시설

‘편중 인사’ 벗어나는 게 ‘인적쇄신’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준비되는 대로 새로운 진용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글평가 현 정권 임기 중반의 국정을 다룰 청와대·정부의 고위직 개편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인사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편중 시비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 정부 들어 편중인사는 도(度)를 넘어서다. 최근 한 신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 이상 61명 중 광주·전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 반면 대통령 고정 출신은 2008년 10명에서 16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지난 해 10월 말 현재 1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중 115명 중 광주 출신이 31명(27.0%)인��에 비해 호남 출신은 9명(7.8%)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다.

물론 인사 편중은 현정권의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다. 대통령은 이번 인사는 지역과 출신을 고려한 탕평인사여야 할 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뜻을 받들고 진정한 쇄신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自動자는 네 바퀴가 고루 잘 돌아야 전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16개 시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결국은 균형·탕평 인사가 관건인 것이다.

代 이은 화천기공 메세나, 타기업 확산돼야

국내 굴지의 공작기계 생산업체인 화천기공(주) 창업주와 가족들의 대를 이은 메세나는 눈길을 끌고 있다. 화천기공 권영렬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 태계한 어머니가 보유했던 이 회사의 주식 6만5817주(시가 33억6000만원)를 증여해 최근 재단법인 서암문화재단을 설립했다.

권 대표가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은 평소 지역 국악인들을 후원하는 등 전통문화 진흥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부친 권운구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다. 재단 이름 역시 부친의 호를 딴 것이다. 서암문화재단은 국악 등 전통문화 유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사업과 연구활동·창작지원 사업도 전개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국악과 같은 전통 문화 유통에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로마제국 시대에 문화·예술을 지원한 재단이 유래된 메세나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활동은 기업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구축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의 문화 활동 지원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이제는 지역 기업들도 메세나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無等 鼓

참 고약한 물건이다. 90분 내내 웅원거리며 선수들의 짜증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말이 응원도구지 알고 보면 경기를 방해하는 훼방꾼이다. 그 물건은 다른 아닌 남아공 전통악기 이동기이다.

일찍이 이 응원도구의 폐해를 간파한 월드컵 출전국들이 FIFA에 부부젤라 응원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FIFA는 주최국의 전통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요청을 일축했다.

부부젤라는 길이 60~150cm 크기의 긴 나팔로 코끼리가 울부짖는 듯한 엄청난 소리를 낸다. 지난 2001년 한업체가 이 악기를 플라스틱 재질로 대량 생산해 남아공 교수 부부젤라 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경우 이명이 생길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더욱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23일 우리의 태극 전사들이 3차전 상대인 나이지리아와 경기 할 때 이 시그на론 악기가 또 하나의 적이 될 듯하다. 가제는 계련이라 했던가 같은 아프리카 국가인 나이지리아를 응원하는 남아공 관중들이 그 어느 때보다 부부젤라를 미친 듯이 불어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태극전사들이 전략 전술도 잘 세워야 하겠지만 부부젤라 소리를 견디는 훈련도 해야 할 것이다.

/김일환 어촌매체 부장 kih8@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